

## 1987년 이후 노동소설에 나타난 골리앗 투쟁의 형상화 연구

김 성 환\*

### 차 례

- |                            |                                   |
|----------------------------|-----------------------------------|
| 1. 1987년과 노동문학             | 2) 노동자 주체성과 연대의 이념:<br>『지옥선의 사람들』 |
| 2. 노동자 대투쟁에서 골리앗 투쟁으로      | 3) 노선과 이념을 위한 골리앗 투쟁:<br>『사랑의 조건』 |
| 3. 노동소설의 이념과 골리앗 투쟁의 서사    | 4. 결론을 대신하여                       |
| 1) 재현 공간으로서의 울산:<br>『철강지대』 |                                   |

### 국문초록

1987년 직후의 노동소설은 6월항쟁을 노동자 계급투쟁으로 재의미화 하였으며, 지식인, 학출 노동자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의 종결 이후 지식인 활동가의 역량이 축소되고 내부의 노선 분열이 시작된 현실은 1987년의 변혁의 전망으로 형상화되기 어려웠다. 이때 노동소설은 내부 갈등과 문제성이 집약된 1990년 울산의 골리앗 투쟁을 새로운 문학적 공간으로 제시한다. 이 글은 울산과 골리앗 투쟁을 노동운동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적 공간으로 형상화한 작품으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로 정화진의 『철강지대』, 방현석의 「지옥선의 사람들」, 안재성의 『사랑의 조건』을 주목한다.

『철강지대』는 공안정국의 상황 속에서 자본과 노동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사장과 어용노조 등의 자본측 반동인물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의 투쟁 방향의 현실적 근거를 모색한다. 『철강지대』가 강조한 것은 노동자의 연대이다. 소설은 개별 작업장 너머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 울산의 골리앗 투쟁을 제시한다. 울산에서 발신된 이념을 수신함으로써 소설 속 투쟁은 한국사회의 계급투쟁이라는 의의를 획득할 수 있었다. 「지옥선의 사람들」에서는 연대의 이념이 더욱 구체화된다. 1980년대의 상황을 반영하여 남성 중심의 노조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공단 전체의 연대파업을 주도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계급투쟁의 가치를 재확인한다. 이때 연대의 이념은 울산의 골리앗 투쟁을 통해 현실성을 획득한다. 울산의 노동자와 소설 속 노동자들은 계급적 동질감을 확인하고, 계급이익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투쟁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지옥선의 사람들」 서사의 주제이다. 『사랑의 조건』은 1980년대 노선 이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형적 공간으로 울산을 설정한다. 지식인 활동가인 주인공은 울산행을 통해 이념 갈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간적인 애정 문제도 극복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주인공이 겪는 갈등은 1987년 이후의 이념 분화, 노선 갈등의 상황을 반영한다. 골리앗 투쟁은 투철한 계급성과 노선 이념의 정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주인공은 울산에 이르러 계급투쟁의 승리를 확신하며 이념과 애정의 갈등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들 노동소설이 설정한 울산과 골리앗 투쟁의 형상화는 이념의 선명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한계를 노정한다. 소설 속 노동자들은 울산 골리앗 투쟁의 성공에 따라 자신의 파업도 성공할 것으로 상상하지만, 이를 증명할 현실은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로 인해 서사의 전망은 과거로 회귀하거나 상상적 동일시에 의탁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제어: 6월항쟁, 노동자 대투쟁, 1980년대 노동문학, 노동소설, 노동계급, 계급적 주체성, 노동계급의 연대, 학출, 선진 노동자, 골리앗 투쟁, 정화진, 『철강지대』, 방현석, 「지옥선의 사람들」, 안재성, 『사랑의 조건』.

## 1. 1987년과 노동문학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sup>1)</sup>을 거치며 시민, 학생, 그리고 노동자들은 해방의 순간을 경험한다. 이 때문에 1987년은 이념적 지향을 내재한 변혁의 시공간으로 표상된다. 직선제 개헌을 통해 정치 체제의 변화가 가시화된 것과 같이 노동운동은 진보적 이념을 현실화할 물질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 하였다. 노동문학이 이에 조용하며 이념의 형상화를 문학적 목표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거의 노동운동을 비판하여 해방적 이념을 제시하고 이념의 필연성을 ‘문학적 진실’<sup>2)</sup>로 증명하

---

1) 노동자 대투쟁은 6·29선언 이후 3개월간 전개되었기에 6월항쟁과 분리되어 이해되기도 하나, 6·29선언의 기만성을 인식하고 노동자의 민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해 저항한 민중운동이라는 점에서 6월항쟁의 연속성에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시민 중심의 6월항쟁이 노동자 항쟁으로 전환되면서 노동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운 사회운동이라는 것이다. 노동자 대투쟁의 성격과 6월항쟁과의 관련성은 서중석 외, 『6월 민주항쟁』, 한울아카데미, 2017, 김원, 『87년 6월항쟁』, 책세상, 2009 등의 논의를 참조.

2) 한 작품의 근거에 놓인 이념과 사상의 의미는 문학적 형상으로만 구현되지 않는다. 이념과 사상이 당위적 관념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가치를 표방해야 한다. 노동소설의 이념이 인물 갈등의 구조로만 형상화되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정치-경제의 억압 속에서 노동자-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전제로 인물의 갈등과 행위가 해방적 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 노동소설 서사화한 ‘과학

려 분투하는 모습은 1987년 이후 전개된 새로운 문학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경험의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1987년의 이념은 실질적 변화를 완성하지는 못했다. 직선제에 의한 정권 교체가 곧 완전한 민주화를 의미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대투쟁의 열의가 노동해방이라는 이념의 실체가 되지 못했음을 인식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투쟁이 종결된 이후 노동운동은 과거 못지않게 강력한 자본 권력과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때 노동문학은 변혁의 시기를 관통한 이념의 굴절에 주목했다. 1980년대 후반 노동문학은 노동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하나의 이념 서사로 통합하고자 했다. 즉 노동자 대투쟁은 1987년의 여파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된 계급투쟁의 차원에서 의미화되어야 할 사건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1987년 이후의 노동문학은 과거 투쟁사를 전경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컨대 안재성의 『파업』(1989)은 1986년 박영진 열사의 죽음을 모티브로 삼아 투쟁의 기원을 탐색했으며,<sup>3)</sup> 정화진의 「동지와 함께」(1988)는 1985년 구로동맹파업을 계급투쟁의 중요한 사건으로 서사화한다.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의 의미는 과거의 계승으로만 의미화되는 것은 아니다. 1987년 이후 노동문학이 급증하던 시기<sup>4)</sup> 급진적 변혁의 열기

---

적' 세계관은 결국 노동자-인간 해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지향은,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말로 표현될 수 있거니와, 1980년대 한국 노동소설의 이념적 지향은 "문학적 진실"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마사 누스바움, 박용준 역, 『시적 정의: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 궁리, 2013 참조.

3) 오현석, 「최초의 노동장편 소설 안재성의 『파업』에 드러나는 '학출'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인문연구』 8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박규준, 「안재성의 『파업』 연구 - 내포적 총체성의 결핍과 인물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6, 한민족어문학회, 2014, 김성환, 「1980년대 노동소설의 대중성 연구 - 이택주와 안재성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54, 동남어문학회, 2022 참조.

4) 1987년 이후 매체상황에 관한 논의는 천정환,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마음산책, 2014, 5장 참조.

가 가라앉던 시점이었기에 노동자 대투쟁의 서사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한계를 비판하고 투쟁의 전망을 역사적 필연성에서 발견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계승과 단절이 동시에 논의되는 특이성은 1989년 이후 상황변화에서 비롯한다. 이른바 공안정국으로 불린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 외에도 노동운동의 대중성이 축소된 상황 또한 위기의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1990년대로 이행하면서 노동운동은 1987년과 같은 사회적 의미의 발신자로서의 위치를 상실해 갔다. 1990년대가 제시한 경제적 풍요와 문화론적 기호들 사이에서 노동운동이라는 기표의 의미가 과거만큼 견고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노동소설 또한 이 위기에 주목했다. 1987년에서 1990년대 초 사이의 짧은 시기에는 변혁의 이념과 자본주의의 물질성이 혼재하는 문제성이 내재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성이 충분히 반영된 서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노동소설이 주목한 사건이 1990년 울산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투쟁이었다. 골리앗 투쟁은 노동자 대투쟁 이후 지속된 현대중공업의 파업 투쟁이 지도부의 현실타협적 입장으로 마무리되자, 투쟁을 지속하기 위해 강경파 노동자들이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이어간 사건이다. 이 사건의 문제성은 지식인 활동가의 한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선진 노동자의 역량이 전면화되었다는 사실에 녹아 있다.<sup>5)</sup>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 그리고 온건한 노조 지도부와 강경 조합원의 입장 차이와 갈등을 반영한다는 점 또한 문제적이다. 이런 점에서 골리

5) 1990년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투쟁은 온건한 노조 지도자를 대신하여 급진적인 일반조합원들의 ‘밑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급진적 선진 노동자들의 역량이 집결한 결과였다. 따라서 골리앗 투쟁은 일개 사업장의 파업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가를 상대로 한 전체 노동계급의 정치투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구해근, 신광영 역,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249-250쪽. 여기서 ‘선진 노동자’라는 표현은 1970년대부터 노동운동을 이어온 노동자 활동가를 대학생 출신인 ‘학출’과 구분하기 위해 통용되는 용어이다. 오하나, 『학출』, 이매진, 2010, 75-80쪽 참조.

앗 투쟁은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여러 문제성과 가능성이 다층적으로 얽힌 상징적 사건이라 평가할 만하다.<sup>6)</sup>

이 글은 이와 같은 골리앗 투쟁의 문제성에 주목한다. 이 글을 통해 골리앗 투쟁과 관련된 노동소설의 형상화 양상을 살펴 이 시기 노동문학 이념의 전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골리앗 투쟁의 재현의 분석이 아니라 노동소설이 골리앗 투쟁이라는 사건과 울산이라는 공간을 노동운동의 이념 속에 정위시키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골리앗 투쟁을 중심에 둔 노동소설 서사의 구조와 그 전망의 지향점을 확인할 것이다. 골리앗 투쟁은 노동운동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지만, 그 의의가 노동문학적 맥락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소설에서 형상화된 골리앗 투쟁은 1987년 이후의 현실성을 넘어서는 문학적 진실의 형식에 가깝다. 그렇기에 울산-골리앗 투쟁의 표상은 1990년대 노동문학의 문학성을 해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논의를 위해 정화진의 『철강지대』(1991), 방현석의 「지옥선의 사람들」(1990), 안재성의 『사랑의 조건』(1991) 등을 중요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이들 작품은 1989년에서 1990년 사이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울산과 골리앗 투쟁을 중요한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다. 소설 속 노동문제는 울산의 실제 현실과 연결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본 권력의 억압과 인물의 내적 갈등은 울산, 골리앗 투쟁과의 동질성을 재확인함으로써 극복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서사의 양상은 골리앗 투쟁의 의미화를 통해 1980년대 투쟁을 갈무리하고, 1990년대의 전망을 제시하려는 노동문학사적 기획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6) 골리앗 투쟁의 배경에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 외에도, 권력의 실체에 대응하는 노조 지도자와 노동자 일반의 관심 등이 다층적으로 얽혀 있다. 그런 점에서 골리앗 투쟁이란 여러 가능성이 중첩된 모호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현현하는 메시아적 사건이라는 시적 의미부여도 가능하다. 윤인로, 「순수 매개, 당파성, 메시아성-1990년 골리앗 위의 노동해방문학」, 정기문 외 공저, 『1980년대를 읽다: 노동과 표현의 문제』, 글누림, 2015 참조.

## 2. 노동자 대투쟁에서 골리앗 투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통한 정치 체제의 변화는 대중이 체험할 수 있는 민주화의 실체이다. 그러나 시민, 학생, 노동자의 연대로 수행된 시민혁명이라는 6월항쟁의 특성으로 인해 형식적 민주화의 성과는 항쟁 주체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진다.<sup>7)</sup> 특히 노동자의 요구와 민주화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6월항쟁은 완성은 노동자에 의해 연기될 수밖에 없다. 이때 시민, 학생의 연대로 쟁취한 민주화의 이념은 노동운동의 실천을 통해 재정의된다. 즉 6월항쟁은 노동자의 계급이익, 혹은 경제적 민주화라는 기호로써 구체화되며, 이를 바탕으로 민주화 이념 또한 대상화된다. 노동운동의 차원에서 볼 때 6월항쟁은 계급투쟁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하는 불완전한 혁명이다.

시민, 학생과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변혁의 현장에서 목격된다.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계층적, 계급적 지향점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노동자, 그 중에서 학출 노동자의 관점에서 6월항쟁은 민주화라는 일반성에 머물지 않고, 노동운동의 특수성이 더해진 이념의 형태로 의미화된다. 이러한 사정은 차주옥의 『함께 가자 우리』(19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 현주는 조직활동에 적극적인 학출 노동자이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노동운동이 전개되지도 않거니와, 여성 노동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남성 활동가의 행태에 환멸을 느껴 현장을 이탈한다. 공장을 떠나 거리로 나선 현주는 1987년 6월 명동에 모인 시민들을 보며 자신의 지난 활동을 되돌이킨다. 현주는 “자신에 대한 반성과 대중에 대한 사죄의 눈물”<sup>8)</sup>을 흘리고서 “확신이 들 조직을 찾아 끝없이 이합집산만을 되풀이”한 과오를 고백한다. 그리고 “난 운동에 운도 모르는 사람이다.”<sup>9)</sup>라는 반성으로 이어져 마침내 새로운 사람

7) 6월항쟁의 시민혁명적 성격과 이후 분화 과정은 김원, 『87년 6월항쟁』, 5장 참조.

8) 차주옥, 『함께 가자 우리』, 실천문학사, 1990, 128쪽.

9) 위의 책, 129쪽.

이 되기를 다짐한다.

6월항쟁의 현장에서 현주가 깨달은 것은 노동운동의 방향이다. 시민의 행렬에 합류하면서도 머릿속에는 학출 조직의 포섭대상이었던 계순이 떠오른다. 이 지점에서 제기된 현주의 반성은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급성의 관점에서 시민, 일반 노동자의 행동을 계몽하고 지도하기 위한 성찰의 의미를 띤다. 그 때문에 현주는 명동의 현장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얼마 후 그 거리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최루가스는 좀 가실 듯싶은 데 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생할 것 같았다.

하나하나의 싸움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현주도 오늘의 명동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의지와 감격을 확인하고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신의 기대만이 아니라 확신으로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아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sup>10)</sup>

최루가스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현주는 농성에 합류하지 않고 시민들과 거리를 유지한다. 이 거리는 ‘승리의 확신’의 차이로 나타날 터인데, 농성하는 시민의 목표가 민주화라면 현주의 승리란 노동운동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뜻한다. 즉 현주는 시민의 저항에 합류하는 대신, 현장의 민주화의 열의를 노동운동의 차원에서 전유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함께 가자 우리』의 서사는 이러한 의지에 근거한다. 1부가 학출 활동가 현주의 좌절을 그렸다면 2부에서는 1987년 이후 또 다른 학출 활동가 혜영을 내세워 계순과의 포섭-계몽의 관계를 성공으로 이끈다. 현주의 반성과 혜영의 노력 끝에 계순이 신실한 선진 노동자로 거듭났을 때 노동운동의 이념은 완성된다. 이 과정에서 학출 활동가는 일반 노동자에 대한 지도적 위치를 포기하지 않는다.<sup>11)</sup> 이러한 태도는 시민항쟁에 대

10) 위의 책, 131쪽.

11) 『함께 가자 우리』는 현주, 혜영 두 학출 노동자의 활동에 따라 1, 2부로 나뉜다. 1부는 현주가 포섭한 계순이 남성 학출에게 낙태를 강요받고 현장을 떠남으로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6월항쟁을 이후에도 학출 활동가가 여전히 ‘포섭’의 주체로 남았다는 점은 노동운동이 시민의 행위를 전유·재의미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여기서 『함께 가자 우리』가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함께 가자 우리』는 시민혁명을 노동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노동자 중심의 당위성을 서사의 중심에 둔다. 이 당위성의 근거는 노동자 대투쟁이다. 노동자 대투쟁의 장에서는 변혁의 주체가 시민, 학생에서 노동자로 옮겨갔으며, 시민의 민주화는 경제민주화, 즉 노동자의 계급이익이라는 가치로 전환된다.<sup>12)</sup> 노동자가 변혁의 주체가 되었을 때 노동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념을 현실화하는 투쟁의 방식을 정립하는 일이었다. 『함께 가자 우리』에서 두 학출 활동가를 내세워 계순을 포섭, 계몽하는 권위적 태도가 잔존한 것은 노동운동의 당위성이 서사를 장악한 상태에서 투쟁 방식만이 갈등의 내용으로 남겨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실제 현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충돌의 첫 번째 배경은 노동자 대투쟁 이후 대중의 관심이 노동문제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이다. 개헌 이후 지속된 경제성장으로 인해 진보적 사회운동에 대한 대중의 열의는 약화되었으며,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기조 변화 또한 학출 서사가 내세운 전망과 어긋나는 부분이었다. 노동자 대투쟁이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분쟁으로 전개된 한계가 분명하였기에, 이 시기의 열의는 계급투쟁이라는 이념의 구체성을 갖추기에는 충분하지

---

써 마무리된다. 이때 현주는 포섭 행위를 포함한 자신의 과거 행적을 반성하지만 2부에서 포섭의 태도는 계속 유지된다. 2부에서 혜영이 다시 계순을 포섭의 대상으로 삼아 일지를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함께 가자 우리』, 188쪽) 혜영은 계순의 고난에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대신 사과하지만 노동자를 포섭하는 선도적 활동가라는 주체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12) 이원보,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노동운동의 성장」, 서중석 외, 『6월 민주항쟁』, 한울아카데미, 2017 참조.

않았다. 따라서 노동자 대투쟁의 종결은 노조 결성률 및 노동 쟁의의 감소 등의 지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사실은 노동운동의 대중성 약화를 의미한다. 개헌과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가 체감되면서 6월항쟁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 학생 등의 다양한 계층의 결집과 공동의 목표의식은 희석된다. 그리고 1989년 이후 이른바 공안정국이라는 정세 변화 또한 노동운동의 위기를 심화한 요인이었다.<sup>14)</sup>

정치적 상황이 위기의 외부 요인이라면 내부 요인으로는 실천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노동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념의 선도성뿐 아니라 다수 노동자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실천 가능성 또한 중요하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 위기론은 곧 노동운동의 주체성론으로 이어진다. 투쟁의 이끄는 지도부와 이를 따르는 노동자 대중의 주체성에 관해 질문을 던질 때 위기의 실체는 분명해진다. 1987년 이후 노동문학이 주체성의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이 때문이다. 홍희담의 「깃발」(1988)은 민주화 이행기<sup>15)</sup>의 출발점에서 주체성 문제를 제기한다. 「깃발」은 광주항쟁을 통해 역사 발전의 주인공은 지식인이 아니라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라는 진실을 발견한다. 「깃발」이 광주를 소환한 것은 노동자 주체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노동자의 계급적 주체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 「깃발」이 극복의 대상으

13) 구해근, 앞의 책, 269쪽.

14) 1988년 말부터 시작된 공안정국은 정부가 진보적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 일련의 통제 정책을 일컫는 용어이다. 김금수, 『한국노동운동사 6: 민주화 이행기의 노동운동 1987~1997』, 지식마당, 2004, 64-65쪽.

15) 민주화 이행기는 범위는 논자마다 다르다. 김금수의 경우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1996년 12월 총파업까지의 10여 년으로 정의하는 반면(김금수, 앞의 책), 허민은 1986년 5월 항쟁에서 1991년 5월까지로 설정한다.(허민, 「민주화 이행기 한국소설의 서사구조 재편 양상」, 성균관대박사논문, 2021). 두 논의에서 이행기의 종결시점은 다르나 출발점은 1987년의 변혁운동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행기 구분의 핵심 요건은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이념의 유효성에서 찾을 수 있다.

로 지목한 과거 중 하나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하 『난쏘공』)이다. 『난쏘공』은 당대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문학이라는 한계가 뚜렷했기에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노동자 주체성을 위한 문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16)</sup>

그러나 「깃발」의 작가가 노동자가 아니어서 실망했다는 발화에서 보듯<sup>17)</sup> 지식인의 전향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노동문학은 지식인 문학과 길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노동운동이 전적으로 노동자의 계급성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현장에는 실질적으로 투쟁을 이끈 지식인 출신 노동자, 즉 학출 활동가들이 실재했기 때문이다. 학출은 스스로를 노동자로 자처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도적 활동가가 되어야 했다. 이때 학출에게 요구된 것은 계급성이 아니라 조직과 투쟁을 위한 이념과 지식이었다.<sup>18)</sup> 학출의 존재는 투쟁이 격화하는 순간에는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정해주의 「동지와 함께」(1988)는 학출 노동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을 묘사한 바 있다. 사측이 학출의 신분을 폭로하여 노조의 분열을 획책하자 노동자들은 다음처럼 반응한다.

“대학에 다닌 것이 죄가 됩니까? 대학을 졸업한 자는 노동자가 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선동하고 배후조종해서 지금 농성중

16) 「깃발」에서는 『난쏘공』의 관념성을 거부하고, ‘이름만 떼고 보면 우리들 글’처럼 읽히는 수기, 편지 등의 글쓰기를 강조한다. 홍희담, 「깃발」, 『창작과 비평』 59, 1988 봄, 187쪽. 이는 1970년대 노동수기 및 1980년대 노동자 생활글쓰기 문학운동을 가리킨다. 이에 관한 논의는 김성환, 「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및 김성환, 「노동자 생활글의 노동문학사적 맥락」, 『한국문학논총』 85, 한국문학회, 2020 참조.

17) 최원식, 「광주항쟁의 소설화」, 『창작과 비평』 60, 1988 여름, 293쪽.

18) 『함께 가자 우리』에서 현주의 노동 숙련도는 매우 낮은 편이나 현주는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계순의 포섭과 계몽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이런 태도는 1970년대 노동자 글쓰기의 주체가 노동 숙련도를 노동자 되기의 중요한 근거로 삼으려는 태도와 대비된다. 김성환, 「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 2장 참조.

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제히 대답한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노동자입니다.”<sup>19)</sup>

학출 활동가가 계급성을 노동자에게서 추인받는 장면에는 1980년대 노동소설이 견지한 계급성 인식이 녹아 있다. 역사적 필연성 속에서 대학생 지식인은 노동계급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이끄는 노동운동은 대중성을 획득하고 계급투쟁에서 승리하리라는 믿음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인 상황일 뿐, 1980년대 현장에서 지식인 활동가의 존재는 여전히 문제적이었다. 「동지와 함께」가 모델로 삼은 1984년 대우자동차 파업은 소설과 유사하게 전개되었지만, 여타의 파업 현장에서 학출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의 갈등은 빈번했다.<sup>20)</sup> 이는 노동자와 지식인 사이의 현실적인 간극을 의미한다.<sup>21)</sup>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선진 노동자와 지식인 활동가들 사이에 갈등은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으며 이 갈등은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경제투쟁, 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을 거쳐 노선 분화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소설의 대응은 노선 이념의 강화였다. 『함께 가자 우리』가 특정 노선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sup>22)</sup> 창작 시점까지 1987년의 변혁이 배태한 낙관적 전망이 유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의 열의

19) 정혜주, 「동지와 함께」, 『내 안의 불빛』, 소명출판, 2003, 159쪽.

20) 구로동맹파업에서 학출 활동가가 전면에 나서자 노동자들은 학출의 존재에 동요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파업대열에서 학출 활동가를 내쫓는 일까지 벌어졌다. 유경순,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 1권: 학출활동가와 변혁운동』, 봄날의박씨, 2015, 410쪽.

21) 위의 책, 416쪽.

22) 소설 속 “군부독재 타도하여 삼민헌법 쟁취하자”(『함께 가자 우리』, 25쪽)라는 발화는 제헌의회그룹(CA)의 노선을 대변한다. 이 노선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이념으로 작동하며 서사 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설의 이념적 근거가 얼마나 견고한지 짐작할 수 있다.

가 가라앉은 후 이 전망은 다시 주체성의 문제를 맞는다. 지식인과 노동자가 하나라는 착시를 거뒀을 때 노동운동의 대중성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 지도부의 노선 전환에 따라 해방적 상상력이 옹기종기 시작할 즈음,<sup>23)</sup> 노동문학은 새로운 문학적 공간을 설정한다. 1987년의 경험이 다가온 현실을 낙관적으로 전유한 것 같이,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상적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공간에서 이념과 주체성의 문제가 해소된다면 해방적 상상력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출 수 있을 터였다. 이때 선진 노동자와 분리된 지식인-학출 노동자의 주체성을 재확립하고, 이를 통해 투쟁 전략을 타진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 울산의 골리앗 투쟁이라는 사건이다.

### 3. 노동소설의 이념과 골리앗 투쟁의 서사

#### 1) 재현 공간으로서의 울산: 『철강지대』

1987년 직후에 제출된 노동소설들은 대개 낙관적 전망에 기울어 있었으나 그 시점은 위기의 출발점이었다. 1988년 이후 제도권 정치로 편입하거나 현실적 이익과 타협한 지도부가 늘어나면서 노동자 대투쟁기에 형성된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연대의식 또한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sup>24)</sup>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즉 ‘전노협’이라는 정치기구가 최종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과거와는 다른 과제를 부여받는다. 즉 노동자 대투쟁 종결 이후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정체성과 계급이익의

23) 위의 책, 228쪽.

24) 1990년 결성된 전노협은 노동자의 대표를 표방했지만, 현대, 대우 등의 대기업 노조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대기업 노조는 이후 개별 교섭에서 실리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 등의 문제의 발단으로 평가된다. 김동춘, 『한국사회 노동자연구』, 역사비평사, 1995, 6장 참조.

두 층위 모두에서 노동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투쟁 방식이 정립되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리주의든 노동자주의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현실 추수주의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sup>25)</sup>

이러한 전환의 요구가 시험대로 삼은 사건이 1990년의 골리앗 투쟁이다. 재벌 기업의 중공업 공장이라는 1980년대적 위상, 그리고 학출 노동자 대신 선진 노동자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골리앗 투쟁은 당대 계급 투쟁의 최전선이라는 의미를 부여받는다. 특히 KBS 파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저항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고공 크레인에 올라 단식 농성을 전개한 극적인 상황은 골리앗 투쟁을 상징적 사건으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골리앗 투쟁의 상징성은 노동문학에서도 유효한바, 울산, 혹은 골리앗 투쟁은 노동해방의 이념을 구현하는 재현 공간<sup>26)</sup>으로 호출된다. 이를테면 회사의 탄압으로 인해 파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인공이 울산을 떠올리며 승리를 다짐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설 속 현실보다 더 폭력적인 억압을 이겨내고 파업을 성공시킨 이상적 공간으로 울산이 설정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정화진의 『철강지대』에서 울산은 투쟁의 원동력을 발견하는 해방적 상상력의 기원으로 등장한다.

『철강지대』는 1989년에서 1990년까지를 배경으로 민자당 창당(1990) 등 당대 현실을 반영하며 사실성을 높인다. 1987년 직후의 단편소설이 노동자와 자본의 대립을 단선적으로 그린 것에 비하면, 『철강지대』가 다양한 갈등 관계를 통해 그려낸 현장은 매우 현실적이다. 특히 자본 권력의 형상화가 두드러지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백상중기의 사장 백준희를 들 수 있다. 그는 평면적인 악인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 사이에서 자신만

25) 구해근, 앞의 책, 357쪽.

26) 재현 공간은 이데올로기의 물질적 실천과 달리 상상적 차원에서 사회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성의 한 양상이다. 파업 서사에서 울산의 의미는 직접 서사화되거나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도, 소문, 발화 등의 방식으로 상상적으로 전유된다는 점에서 울산은 노동소설 내에서 재현 공간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80쪽.

의 세력을 확장해가는 입체적 인물이다. 백준희는 그룹 회장인 장인의 후광과 정부 고위인사와의 협력에 힘입어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그룹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어용노조 위원장과의 결탁하는 수완을 발휘한다. 백준희는 자본의 힘을 대항하면서 자본과 권력이 결탁한 한국의 상황을 폭로하는 문제적 인물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권력의 하수로 전락한 어용노조 위원장의 인물성 또한 흥미롭다. 노조 위원장 김병만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 어용노조를 이끌지만, 한편으로 돌발적 행동을 통해 백준희와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이익과 권력을 도모한다.<sup>27)</sup> 그 외에도 지하조직 상록회에 프락치를 심어 노조 와해 공작을 펼치는 김덕배 부장이나 구사대에 앞장선 공로로 대의원이 된 윤 조장 등의 인물을 통해 『철강지대』는 자본권력의 양상을 사실감 있게 묘사한다.<sup>28)</sup>

자본가, 독재정권, 그리고 소시민 동조자들로 자본권력이 구성된 만큼, 그에 맞서는 노동자의 투쟁은 국가 자본주의 체제 내 계급투쟁이라는 의미를 선명히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파업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투쟁의 계급적 대립 구도는 선명해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제적 근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대투쟁과 같은 대중성은 이제 보기 힘들다.

“아아 작년 노동자대회 때는 정말 금방이라도 세상이 변할 것만 같았는데!”

“누가 아니래니. 나도 태어나서 그런 감격은 처음이었는데. 그 함성, 그 행렬! 육교 위에 올라가서 봐도 끝이 가물가물한 거 있지?”

27) 백상중기 노조위원장 명의의 전교조 지지성명이 신문광고에 실린 것을 보고서 백준희는 “거 참 그로테스크한 인물일세!”(『철강지대』, 풀빛, 1991, 160쪽) 라고 중얼거린다. 이는 어용노조를 이끌면서도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는 김병만은 입체성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28) 1980년대 노동소설에서 자본가의 형상화가 평면적이라는 약점(최원식 외 공편, 『방현석·김한수 외』, 창비, 2006, 334쪽)에 비하면 『철강지대』의 김 부장, 윤 조장, 김병만 등의 입체적 인물성은 장편 『철강지대』의 성취라 평할 수 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게 무슨 이변이야?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늘은 완전히 피죽 썩었네. 연주 언니 기억나? 노천극장에 들어설 때 우리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니까 수만 명이 기립박수를 쳤던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 무엇이 오늘 대회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것일까?”<sup>29)</sup>

파업 선전물을 들고 거리에 나선 노조원들은 초라한 현실 앞에서 ‘불과 몇 개월 전’의 경험을 오랜 과거처럼 회상한다. 이때 투쟁의 의지를 북돋우는 사건이 울산의 골리앗 투쟁이다. 골리앗 투쟁은 개별 사업장을 넘어선 노동계급의 정치투쟁이라는 의미가 분명하기에, 골리앗 투쟁에 대한 전국적 지지와 연대 선언이 이어졌다.<sup>30)</sup> 『철강지대』가 이념의 근거를 울산에서 발견한 것은 골리앗 투쟁이라는 현실을 서사의 층위에 포함했음을 의미한다. 즉 골리앗 투쟁은 그 존재만으로 서사 내에서 상상적 동일시를 촉발한다.<sup>31)</sup> 이 동일시에 따라 울산의 상황은 곧 백상중기 노동자의 현실이 된다.

모래알만한 힘이라도 합해야 하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독점 재벌군단과의 대결에서 한 치도 전진할 수 없다는 그 자명한 명제를 상실했지 않은가.

- 언제까지 우리는 울산을 동경어린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지? 우리는 우리의 상황만 탓하고 늘상 우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가?

언젠가 승혁이 비통하게 씹어뱉던 말이 상철의 폐부를 찔러왔다.

(중략)

29) 『철강지대』, 73쪽.

30) 구해근에 따르면 1990년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투쟁은 온건한 노조 지도자를 대신하여 급진적인 일반조합원들의 ‘밑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급진적 선진 노동자들의 역량이 집결한 결과였다. 따라서 골리앗 투쟁은 일개 사업장의 파업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가를 상대로 한 전체 노동계급의 정치투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구해근, 앞의 책, 249-250쪽.

31) 김원, 앞의 책, 161쪽.

- 이런 실패라면 울산은 조만간 고립된다. 아냐 현재 상태로도 고립됐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야”<sup>32)</sup>

파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울산에서 발신된 이념을 정확히 수신해야 한다. 지도부에 전달된 것은 골리앗 투쟁이 담보한 계급투쟁 이념의 선도성이다. 백상중기의 투쟁 또한 계급투쟁의 성격이 명확하기에 골리앗 투쟁의 승리는 백상중기 노조의 승리를 위한 충분조건이 된다. 그런 점에서 소설의 이념은 실제 현실과 직결된다. 달리 말해 골리앗 투쟁의 이념의 강도에 비례하여 백상중기 파업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창원과 안양에 이어 인천 공장까지 차례로 어용노조 지도부를 불신임하는 서사 속 이념은 서사 밖 울산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 셈이다.

그러나 『철강지대』 결말부의 이념이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소설이 제기한 연대의 이념이 실천적 힘을 발휘하는지의 문제이다. 울산이라는 이념적 정향에도 불구하고 인천 공장의 파업이 계급적 연대로 확장되는 서사를 구성하는지를 살펴보자. 파업 지도부는 위의 인용처럼 울산을 언급하였으나 소설 내에서는 안양과 창원의 사정은 인천 공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울산이라는 이념 기표는 실천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의미를 담보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주체성 형상화의 문제 또한 제기된다. 『철강지대』에서 노동자의 계급적 정체성은 연애와 가족 관계 등 일상 차원에서 다양하게 묘사되었지만, 계급투쟁이라는 이념 차원에서의 형상화는 긴밀하지 않다. 예컨대 중철과 명진이 데이트 도중 모란공원에 들러 전태일을 선배님이라 부르며 표역을 찾는 장면은 인물에 일반화된 관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유형화라는 한계가 분명하다.<sup>33)</sup> 이같은 형상화 방식은

32) 『철강지대』, 189-190쪽.

33) 『철강지대』, 178쪽. 인물의 유형화에 관해서는 장수익, 「1980-90년대 노동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75, 한국문학회, 2017 참조.

학출 노동자의 경우에도 반복된다. 상록회원 승혁은 학출 신분이 탄로난 후 공안기관에 체포되고 고위 관료인 부모의 집에 억류되지만, 투쟁 소식을 들은 후 집에서 탈출하여 파업의 극적인 순간에 합류한다. 이러한 설정은 이념에 상상적 재현이 개입한 사례이다. 승혁의 인물성은 당대의 현실과도 거리가 멀 뿐 아니라 파업 서사에서도 역할이 불분명하다.

인물 형상화의 문제는 이념과 현실의 격차 사이에 놓인 노동서사의 곤란함을 의미한다.<sup>34)</sup> 1987년을 거쳐 도출된 이념이 1989년 이후의 현실을 극복할만한 현실적, 실천적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사서는 빈틈을 드러내며, 이후 전망 또한 지향성이 불투명해진다.

사람들은 때로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사건들을 꺼내기도 했다. 87년 가을의 위원장 불신임 결의와 최초의 파업, 노래, 공장 정문의 바리케이드 …… 사선을 뚫고 격전을 치른 용사의 무용담을 나누듯 파장기가 섞이기도 했다.<sup>35)</sup>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노동자 대투쟁을 떠올리지만, 기억의 재현만으로는 파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몇 년 사이 정세가 급변했거니와 연대의 이념은 울산에 대한 상상의 차원에 머물기 때문이다. 『철강지대』의 서사의 취약함은 여기서 기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철강지대』는 민자당의 탄생을 자본 권력의 재편으로 규정하고 이를 투쟁의 서사와 병치시킴으로써 이념의 현실성을 모색한다. 그러나 서사에서 분출된 문제의식을 전노협 결성이라는 중대한 사건과는 연결시

34) 이남희는 1980년대 노동소설에서 학출 지식인은 원숙한 이론가로, 일반 노동자는 존재론적으로 혁명성이 내재한 인물로 그려진다고 분석한다. 이는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의한 것으로, 담론의 결핍, 내면성의 결여라는 문제성을 안고 있다고 이남희는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명적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남희, 유리·이경희 역, 『민중 만들기』, 후마니타스, 2015. 8장 참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노동서사의 곤란함이란 파업을 앞둔 지식인, 노동자의 혁명적 언어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35) 『철강지대』, 314쪽.

키지 못한 점 또한 노동서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sup>36)</sup>

## 2) 노동자 주체성과 연대의 이념: 「지옥선의 사람들」

『철강지대』 서사의 취약성은 이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을 뒷받침할 현실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 탓이 크다. 노동운동 내부에서 갈등이 분출된 상황에서<sup>37)</sup> 1987년 수준의 전망으로는 급격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학출의 비중이 축소되고 노동자 중심의 조직이 구성되었을 때 노동운동의 선결과제는 노동계급 전체의 연대였다. 시민, 지식인 계층과의 협력이 아닌 노동계급 내 연대 강화라는 이념은 노동자 대투쟁 시기 자연발생적 쟁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이후 전국적인 노동자 조직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이 요구가 결집된 지점이 전노협이다.

방현석 소설의 주제는 1980년대 말 노동운동의 정치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새벽출정」(1989)은 서사의 초점을 노동과 자본의 대립에서 노동계급의 연대로 옮긴다.<sup>38)</sup>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세광물산은 선홍정밀

36) 정화진은 「작가후기」에서 1988년 즈음에 소설의 초고를 완성했으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990년 전면적으로 수정한 집필과정을 밝혔다. “세상은 참 많이 변했다”고 말할 만큼 큰 변화가 있었지만, 수정을 통해서도 전노협 등의 1990년 이후의 정세 변화는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웠을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37) 학출과 노동자 사이의 관계는 1985년 구로동맹파업 이후 정치 조직화 과정에서 현장 활동에서 멀어졌으며, 노동자 대투쟁 시기를 지나며 선진 노동자와 실무자 학출이라는 경계가 생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 분화과정이 원활한 것은 아니었는데,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은 희생으로 건설한 민주노조들의 파괴에 이바지한 것은 사실 학생들의 정치적 모험주의”라는 비판도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구해근, 신광영 역,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263쪽 및 이하나, 『학출』, 이매진, 2010, 75-80쪽 참조.

38) 김명인은 정화진의 「셋물처럼」의 낙관주의가 단편이라는 양식과 개별사업장의 경험이라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좌담: 민족문학과 민중문학」, 『창작과 비평』, 1988 봄, 47쪽) 이에 비하면 「새벽출정」이 연대를 강조한 점은 낙관주의의 극복한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의 남성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노조를 설립했다. 그리고 파업이 장기간 지속된 것도 세광과 선홍의 “피로 맺은 연대노조”<sup>39)</sup> 덕분이었다. 두 노조의 관계는 1980년대 노동운동의 전환을 대변하고 있다. 세광 노조가 동일방직, 원풍모방 등 1970년대 노조와 유사한 데 비해, 선홍 노조는 남성-대공장-중공업 사업장이라는 1980년대적 특징이 뚜렷하다.<sup>40)</sup> 서사의 초점이 세광 노조에 맞춰지면서도, 공단 전체의 투쟁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선홍 노조가 주목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경제투쟁, 조합주의 등의 오류를 극복하고 계급투쟁을 선도하는 주축은 남성 노동자 중심의 선홍 노조가 적격이라는 의미가 내재한 것이다.

그리고 선홍 노조의 선도성이 세광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제3자’의 개입을 통한 연대와 정치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sup>41)</sup> 이러한 논리가 선홍 노조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기에 선홍 노조는 세광의 파업에 중요한 모티프로 자연스럽게 개입한다. 「새벽출정」의 파업 서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티브는 철순의 죽음이다. 철순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파업을 둘러싼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며, 회사의 폐업선언을 뚫고 파업이 성사된다. 그러나 파업 서사의 이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의 흐름이 존재한다. 세광의 파업은 선홍과의 연대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이 연대는 공단 전체로, 나아가 노동계급 전체의 투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이는 이념이 서사의 형식으로 외화한 것이다. 비록 서사의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출정을 선언하는 극적인 장면에서 이념과 서사는 결합을 시도한다. 세광의 파업이 “2500만 노동자”<sup>42)</sup>의 투쟁임을 선언하는 장면에는 노동자 주체성을 형성하는 열사의 표상과 노

39) 방현석, 「새벽출정」, 『내일을 여는 집』, 창비, 1991, 68쪽.

40) 「좌담: 민족문학과 민중문학」, 『창작과 비평』, 1988 봄, 46-48쪽.

41) 1987년 개헌 이후 노동법 개정에서도 복수노조, 제3자 개입, 노조의 정치활동 등은 여전히 금지되어 노동운동 탄압의 빌미를 제공했다. 노호창, 「1980년대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개정과 노동권 실현에 있어서의 함의」, 『연세법학』 41, 연세법학회, 2023 참조.

42) 「새벽출정」, 92쪽.

동계급의 연대를 요구하는 당대의 이념이 겹쳐져 있다.

「새벽출정」에 내재한 연대의 이념은 노동자 정치를 목표로 내세운 전 노협의 결성으로 현실화되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들은 「새벽출정」에 직접 삽입되지는 않았으나 방현석 소설에서 연대의 이념은 서사를 구성하는 논리로 작동한다. 연대의 이념이 콜리엇 투쟁이라는 현실과 결합한 서사가 「지옥선의 사람들」(1990)이다. 이 작품의 배경은 파업을 앞두고 위기감이 감도는 가상의 ‘해포조선소’이다. 그러나 해포조선소를 포함하여 소설 속 공간은 실제 노동현장과 연결된다. 다리 하나로 연결된 섬이라는 점에서 해포조선소는 거제의 조선소를, 대규모 공권력 투입에 맞서 콜리엇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전개하는 울산의 ‘현중조선소’는 현대중공업을 가리킨다. 그 외에도 KBS, 지하철, 풍산금속 등의 잇단 파업 등 실제 상황이 소설 속에 다수 삽입되어 있다.

소설은 현중조선소의 파업 소식이 해포조선소에 전해지면서 시작한다. 해포의 노동자들은 울산의 상황이 노동계급과 자본권력의 대립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으며 현중의 투쟁은 자신들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따라 해포 또한 정치투쟁의 공간이 되며, 해포의 투쟁은 울산과의 연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 또한 깨닫는다. 해포의 지하 노동조직인 동지회의 이념적 지향도 현중조선소와의 연관성 속에서 설정된다. 당장의 투쟁 목표는 노조 설립이지만, 현중조선소의 상황이 전해진 이상 동지회의 목표는 해포를 뛰어넘어 한국 노동계급 전체 차원으로 확장된다.

어쩌면 봉수 네가 생각했던 대로 해방되지 않으면 불행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노동운동의 진정한 주인이겠지. 뒤집어서 말하면 노동자의 해방을 위해서 아무리 더디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투쟁의 전선을 곳곳하고 끈질기게 지켜나가는 사람만이 노동운동의 주인이 아니겠냐. (중략) 우리 해포조선소가 전선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자.<sup>43)</sup>

43) 방현석, 「지옥선의 사람들」, 『내일을 여는 집』, 창작과비평사, 1991, 219쪽.

인용에서 보듯 해포의 투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불행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동자 해방”이라는 이념의 차원으로 승화되어 있다. 노동해방의 이념에 따라 해포의 투쟁과 현중의 골리앗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통합된다. 해포의 노동자들도 이를 명확히 인식한다. 현중의 골리앗 투쟁은 노동해방을 위한 “전선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 골리앗이 어떤 데고 거기에 올라가 있는 현중 동지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일겁디. 길게는 얘기 안하겠십디. 우리는 오늘 우리 노동자들의 시위를 보호할라꼬 지원한 겁디. 우리의 책임은 가진 놈들의 똥개들로부터 우리 노동자들을 지키 내는 겁디.<sup>44)</sup>

계급투쟁의 이념에 따라 해포와 현중의 노동자들은 ‘우리’로 호명될 수 있으며, 해포의 투쟁을 통해 현중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 연대를 실천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투쟁을 이끈다. 그리하여 해포의 투쟁은 섬에 고립된 사업장 공간을 넘어선다. 해포의 임금인상 공세는 현중과의 연대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에 따른 것이며, 봉쇄를 뚫고 창원으로 진출하여 방어전투조를 구성하는 것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술이다.

「지옥선의 사람들」은 지식인과의 협력 문제 또한 노동계급의 연대라는 이념 내에서 거론한다. 동지회에 포함된 학출 노동자 외에도 KBS 노조와 같은 지식인 그룹과의 관계는 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철강지대』와는 달리 「지옥선의 사람들」에서 학출 노동자의 역할은 구체적이다. 학출인 민호가 대열에서 이탈하여 복학을 결심하자 동지들은 분노하며 “네놈은 지금까지 뺨긋하면 입에 올리던 노동자계급의 이름을 팔아 노동자계급을 철저히 기만했어.”<sup>45)</sup>이라며 노동

44) 위의 책, 222쪽.

45) 위의 책, 183쪽.

계급이 될 수 없는 학출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나 민호는 이탈 후에도 투쟁에 일정한 기여를 한다. 봉쇄에 가로막혀 있을 때 민호의 기지 덕분에 창원으로 진출하여 선전전을 성공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글마도 어디서고 좋은 일 안하겠나.”, “맞심더, 어느 자숙이 효자될지 알겠는고?”<sup>46)</sup>라는 발화에서 보듯 학출 지식인은 변절자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형의 인물로 제시된다.

지식인과의 관계는 KBS 노조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권력의 입장만 대변하던 방송이 파업을 전개하며 양해를 구한다는 방송을 내보내자 동지회의 노동자들은 “기꺼이 양해를 했다.”<sup>47)</sup>라고 되뇌며 기자 노조를 지지하는 심정을 내비친다. 이는 조선소 노동자에 비하면 기자 노조는 ‘진정한 노동자’와는 거리가 있지만, 사회 전체의 변혁의 차원에서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그렇지라. 케이비에스가 시방같이 효자 노릇할지 우째 알았겠소, 잉.”<sup>48)</sup>라는 반응에서 지식인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기대를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지옥선의 사람들」은 노동계급의 조직적 연대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사회적 차원에서 지식인과의 협력 가능성은 열어 두었다.

이러한 전망은 노동운동이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도달한 현실 인식의 한 지점이다. 1987년 직후 노동소설이 경제투쟁, 조합주의를 비판하며 선진 노동자의 주체성을 내세웠을 때 이는 이념의 ‘과학성’과 모순되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이념이 견지한 과학성만으로 정리되기 어려웠다. 학출을 포함한 지식인의 역할은 노동문학에서 여전히 문제적이었으며, 노동운동 조직 내부의 갈등과 분화는 서사적 전망을 초과하는 양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권 정치와의 관계는 물론, 전노협과 대기업 노조가 분열된 상황은 정치투쟁의 전망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옥선의 사람들」이 제시한 연대의 이념

46) 위의 책, 208쪽.

47) 위의 책, 174쪽.

48) 위의 책, 208쪽.

과 지식인과의 관계 설정은 1990년 당시 노동문학이 제시할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인 셈이다. 계급성과 연대를 투쟁의 중심에 두고 지식인을 협력 대상으로 제시함으로써 골리앗 투쟁이라는 사건을 계급투쟁의 이념 차원에서 전유할 수 있었다. 이때 문제는 골리앗 투쟁의 실제 현실과 「지옥선의 사람들」의 전망이 정확히 일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대의 현실을 정밀하게 탐색하지 않을 경우 골리앗 투쟁은 일종의 신화적 사건으로 떨어질 위험도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의 문제성은 지식인의 한계를 넘어선 주체의 이념으로써 재구성되어야 했다.<sup>49)</sup>

### 3) 노선과 이념을 위한 골리앗 투쟁: 『사랑의 조건』

안재성의 『사랑의 조건』(1991)에서 골리앗 투쟁은 갈등 해결의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한다. 『철강지대』, 「지옥선의 사람들」과의 차이는 갈등의 내용이 지식인 활동가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이다. 노동자 대투쟁의 이념적 자장 내에 있는 서사에서는 일반 노동자와 분리된 지식인 활동가의 주체성이 전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노동자 대투쟁 시기의 이념이 약화되자 새로운 전망 수립을 위해 지식인 활동가의 역할이 다시 강조된다. 여기에는 투쟁의 주체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1990년대의 변화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의 생산 주체라는 지위도 포함된다. 대중 노동자와 학출 활동가의 분화 이후 노동자 중심의 서사가 해결하지 못한 현실 문제를 지식인 노동자의 이념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랑의 조건』 또한 이와 같은 문제성이 집약된 공간으로 울산에 지목했다. 골리앗 투쟁이 펼쳐지고 있는 울산은 학출 활동가의 인간적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그가 견지한 이념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49) 「지옥선의 사람들」이 골리앗 투쟁을 계급투쟁의 최전선으로 묘사했지만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대기업 노조라는 한계는 분명하다. 전노협은 현대중공업공업의 투쟁을 지지하는 총파업을 결정하였으나, 대기업 노조와 화이트칼라 노조가 전노협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민주노조 내부의 분열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향후 직면할 조직적 어려움을 예고했다. 구해근, 앞의 책, 256쪽.

원형적 공간으로 그려진다.

『사랑의 조건』이 울산을 호명한 문제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주인공 광주의 이력을 살펴보자. 1980년 광주항쟁을 계기로 노동현장에 투신한 광주는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현장을 떠나 상부조직에서 활동한다. 이때 광주가 겪는 갈등의 핵심은 노선 문제이다. 광주는 지식인 운동권의 노선 갈등과 선진 노동자와 학출 사이의 주도권 다툼 등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의 문제성의 한복판에 놓인다. 1987년을 전후하여 학출 동지들은 ‘NL’, ‘PD’, 혹은 ‘CA’ 등의 노선으로 나뉘었고 그에 따라 정치적 목표와 투쟁 방식도 갈라졌다. 광주가 상부조직으로 전신한 것을 두고는 후배들로부터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이때 광주는 자신의 계급성을 증명함으로써 노선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현장 투신 이후 자발적인 이론 학습을 통해 진정한 유물론자, 사회주의자가 되었다고 선언할 만큼 광주는 계급적 정체성은 뚜렷하다.<sup>50)</sup> 그의 이념적 투철성은 노동운동의 원동력이었다.<sup>51)</sup>

우리는 NL이라 불리는 민족해방주의자들이 근본적으로 민족주의 색채를 띤 기회주의 세력이라 규정했다. 제헌의회파라 불리기도 했던 CA에 대해서는 러시아혁명의 몽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관념적 좌익기회주의라 규정했다.<sup>52)</sup>

노선 분열에 대한 비판의 근거에는 1980년대 학출 그룹의 조직적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자부심이 존재한다. 1980년대 초 “다른 현장 활동가

50) 안재성, 『사랑의 조건』, 한길사, 1991, 104쪽.

51) 이러한 노선 갈등은 전작 『파업』에서도 비중 있게 그려진다. 주인공 홍기는 이른바 ‘비지야당’파와 손잡은 개량주의, 지나치게 관념적이어서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CA 등의 노선을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CA의 조직규율만은 부럽다고 말함으로써 노선 갈등은 이념투쟁에서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안재성, 『파업』, 139쪽)

52) 『사랑의 조건』, 171쪽.

들에게 쉽게 주어지는 배움의 기회를 계속 박탈당한 채, 훌훌단신”<sup>53)</sup>으로 공장에 들어갔으며 힘든 노동을 견디며 스스로를 ‘전위적 활동가’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자부심을 바탕으로 이론 학습에 매진한 광주는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기에 노선 분열에 대해 지도적 입장을 내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다. 또한 현장을 떠났다는 후배의 비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sup>54)</sup> 『사랑의 조건』은 학출, 혹은 지식인 활동가들이 필연적으로 겪은 정체성 문제와 노선 갈등에 대해 광주의 확고한 신념으로 대답한다.

이와 함께 『사랑의 조건』에는 연애 문제도 이념 서사의 한 축을 이룬다. 1980년대 노동문학에서 계급성을 내포한 젠더 문제를 다룬 소설은 드물지 않다. 예컨대 건설한 활동가가 가정 내에서는 억압적 가부장의 태도를 보인다거나(「동지의 집」), 노동자의 가정에서 계급 모순이 발견되는 현실을 고발함으로써(「내일을 여는 집」)<sup>55)</sup> 계급투쟁이 일상의 차원에서도 펼쳐져 있음을 강조한다. 『사랑의 조건』의 애정 서사도 이와 유사하다. 광주는 진숙에 첫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한다. 열렬한 활동가들의 연애는 동지적 사랑으로 승화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개입함으로써 둘의 사랑은 평범한 통속적 연애로 떨어질 위기를 맞는다. 진숙이 다른 남성 활동가와의 관계에서 유산을 겪었다는 ‘과거’가 밝혀지자 광주는 원초적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다.

53) 위의 책, 89쪽.

54) 후배 박인주가 “왜 현장을 버리고 단체로 간거요?”라고 묻자 광주는 공장에 다니는 것만이 노동운동이 아니며, 직업적 전위활동가를 만드는 일도 혁명에는 필요하다라고 답한다.(『사랑의 조건』, 193-194쪽)

55) 정지아의 「동지의 집」(『노동해방문학』, 1989.12)의 남편은 “노동해방 없이 내 가정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노조활동과 집안일로 고단한 아내에게 권위적이며 강압적 태도를 보인다. 이에 대해 방현석의 「내일을 여는 집」은 “계급 착취를 인간사회의 보편적 진리로 위장시키는 출발점이 가정에서의 불평등”(방현석, 「내일을 여는 집」, 『내일을 여는 집』, 창비, 1991, 114쪽)이라는 이념적 각성을 강조함으로써 젠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때 『사랑의 조건』은 애정의 위기를 이념의 차원에서 해결하려 한다. 「동지의 집」, 「내일을 여는 집」이 제시한 전망에 비하면, 『사랑의 조건』의 이념은 훨씬 구체적이다. 광주의 분노에 대해 진숙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내가 사랑한 것은 역사적 인간으로서의 너야. 내가 역사 속에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잊고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인간으로 전락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떠날거요.<sup>56)</sup>

광주의 애정 갈등이란 비역사적, 이기적 반동이기에 이를 조직-이념의 차원에서 해소하지 않으면 연애는 중단될 것이라는 것이 진숙이 담지한 이념의 정체이다. “연애문제도 조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267쪽)는 레닌의 언명을 인용한 것처럼 이 이념은 광주와 진숙이 몸담은 노선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는 계급의 관점에서 젠더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 이념으로써 애정의 문제를 전유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광주와 진숙의 애정 서사는 꺾진성을 상실한다. 광주가 진숙의 태도에 이내 수긍하고 연애 감정을 회복하는 장면도 그러하거니와, 규율을 어기고 진숙을 만나려다 프락치에게 발각되어 자아비판을 하는 장면 등은 애초 낙태로 인해 위기를 맞은 애정 서사의 출발점과는 어긋나 관념성만이 두드러진다.

노선 이념으로 위기를 극복한 광주의 연애 서사는 소설의 후반부에 이르러 투쟁 노선과 더불어 하나의 문제성으로 통합된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골리앗 투쟁이 전개되는 울산의 공간성이다. 1989년 이후 정세 변화로 인해 광주가 몸담은 사회주의 조직은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거기에 더해 광주의 규율 위반으로 인해 진숙도 종적을 감추며 애정 서사도 위기를 맞는다. 이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울산에 있음이 드러

56) 『사랑의 조건』, 239-240쪽.

난다. 진숙이 울산에 있다는 소식과 함께 광주는 콜리앗 투쟁 현장에 지도원으로 파견된 것이다. 울산은 계급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투쟁의 최전선이자, 연애 문제를 ‘조직적으로 해결’하여 노동자의 윤리성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광주는 울산에 이르러 계급투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동시에, 진숙의 임신 소식에 만세를 부르며 두 갈등을 일거에 해소한다.

그런데 광주의 확신은 실제 현장의 사실과 부합할 수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광주의 현실 감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광주는 경험을 근거로 학출의 선부른 모험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를 해답으로 도출했다. 그리고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업적 전위활동가를 강조했다. 즉 1980년대 초반처럼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 노동자를 전위로 양성하라는 것이다.<sup>57)</sup> 이에 대한 비판은 내부에서부터 나온다. “책 몇 권 읽고 지들끼리 모여서 너도 전위, 나도 전위, 웃기는 짬뽕들 아니고 뭐요? 그래서 한 일이 도대체 뭐요? 보급투쟁한다고 사방에서 돈 뜯어다가 회의하는 일밖에 더 있어요? 멀쩡히 잘 활동하는 현장 활동가들을 달달 볶거나 하구”<sup>58)</sup>라는 후배의 발언은 1980년대 말 지도적 역량을 잃어가는 지식인 활동가의 위기를 반영한다. 이에 대해 광주는 후배의 ‘중대한 자기변혁’ 혹은 변절을 의심할 뿐,<sup>59)</sup> 적실한 반론은 제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울산에서 혁명의 필연성을 증명하는 일뿐이다.

울산으로 향한 광주의 태도는 단호, 혹은 단순하다. 그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은 ‘스탈린주의의 오류의 현실화’라는 진단을 내리며 오히려 사회주의를 위한 전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sup>60)</sup>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이

57) 『사랑의 조건』, 195쪽.

58) 『사랑의 조건』, 194쪽.

59) 『사랑의 조건』, 191쪽.

60) 광주는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을 보며 오히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진다. 그는 “인간적 사회주의”라는 대의의 참뜻을 이해하면서 갖게 된 새

다. 울산의 문제성을 인식한 것은 광주의 현실 감각에서 비롯하였으나 선진 노동자가 투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학출 활동가가 혁명적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생각은 노동자 대투쟁 이전 상황에 고착된 믿음의 영역에 해당한다. 1990년대 대중성의 변화와 비지파, 민중후보파로 나뉜 제도권 정치와의 관계 등이 다층적으로 얽힌 현실은 광주의 문제성 인식을 초과한 상황이었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가 한국 노동운동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끼친 상황<sup>61)</sup>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은 곧 이념에 대한 상상적 동일시를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광주와 주변의 활동가들은 혼란에 빠진다. 광주는 후배 인주가 주사파로 전향했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도 조직의 후배들에게 주사파로 매도당하는 처지이다.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어떤 진영도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들의 이념 투쟁이란, “땀, 종이, 잉크의 낭비”<sup>62)</sup> 일 터이다. 자신을 사회주의자, 유물론자로 만든 이념은 현실성이 약화된 지점에서는 상상적 준거로서만 기능한다. 그렇기에 “더욱 가열차게 활동하는 것만이 궁극적 해결”<sup>63)</sup>이라는 언명 이외의 결론은 찾지 못한다.

그렇다면 울산의 골리앗 투쟁은 객관적, 과학적 전망을 내재하고 있을까. 전작 『과업』에서 학출 활동가는 1986년을 배경으로 노선 갈등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학출 노동자는 혁명을 위해 울산을 찾지만 승리의 전망은 막연한 기대에 가깝다.

---

로운 희망이었다. 스탈린 시대에 씌어진 교과서로나마 배웠던 내게 다가온 이 새로운 희망은 분명 힘이 되었다.”라며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사랑의 조건』, 245쪽.

61) 강신준, 「두 개의 마르크스, 이념의 복원과 전술적 교훈」, 『산업노동연구』 21(1), 한국산업노동학회, 2015 참조.

62) 안현효, 「한국 사회성격논쟁의 현재성-NLPDR에서 신자유주의까지」, 『현대사상』 9, 대구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2011, 7쪽.

63) 『사랑의 조건』, 267쪽.

진정 이 땅은 고난의 땅이야. 저주받은 땅이야.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길고 고통스런 노동을 강제당하는 땅 (중략)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야. 역사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당위만이 아니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착취의 중심, 침략과 예측의 중심이기 때문에, 최악의 비인간적 삶이 집적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혁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지난 3년이 그걸 증명했잖니?<sup>64)</sup>

소설적 전망이 인용과 같은 믿음에 기댈 때 서사는 과거에 고착되는 양상을 보인다. 『사랑의 조건』의 서사의 시간은 광주가 현장에 투신한 1980년대 초에서 1990년 콜리엇 투쟁까지이다. 화자의 서술은 지난 10여년의 역사성을 조망하기보다 인물의 경험으로 회고하는 경향이 짙다. “당시 운동권에는 20세기를 풍미해온 위대한 사상, 사회주의가 거세게 몰아쳐오고 있었다.”<sup>65)</sup>와 같은 회고적 어조는 주제 의식의 굴곡과 연관된다. 몇 해 지나지 않은 과거와 콜리엇 투쟁이 전개되는 현재와의 심리적 거리는 이념 단절의 표현이자 전망 부재의 징후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사파로 전향하였다가 고문 후유증 끝에 분신한 박인주의 죽음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돌려버린 것도 이와 관련 깊다.<sup>66)</sup> 사건의 실제성 대신 후배를 잃은 슬픈 감정을 강조하는 회고적 태도는 서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 투쟁과 이념 갈등을 갈무리할 만한 전망이 부재한 상황

64) 『사랑의 조건』, 299쪽.

65) 『사랑의 조건』, 88쪽.

66) 박인주는 실존 인물인 최동 열사를 모티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최동(박인주)의 죽음에는 당시 노선 갈등과 정권의 공작 등 다양한 맥락들이 존재하나, 소설에서는 이러한 맥락과 거리를 둔다. 광주는 인주의 죽음 앞에서 “나와 함께 일할 때는 극좌파로서, 인천으로 가서는 주사파로 중도라는 것으로 모르고 우에서 좌로, 좌에서 우로 극단적으로 변화할 만치 고지식하고 외곬수였던 그였다.(중략) 혁명가로서의 내 스승이요, 조직가로서 내 스승이던,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치적 정적이던, 그러나 형제보다 더 친하게 20대를 함께한 그였다.”(『사랑의 조건』, 256-257쪽)라고 애도한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강조되고 있으나, 정적이자 동지로서의 의미는 조사(弔辭)에서만 드러날 뿐 그의 죽음은 서사적 의미를 가지지 않은 채 후경화된다.

을 반영한다.

1987년이라는 정점을 지나온 노동운동이 급변한 현실과 부딪치며 쇠진하고 있을 때 『사랑의 조건은』 두 방향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울산의 골리앗 투쟁을 이상적 공간으로 상상하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 그리고 연애의 고난을 극복하고 노동계급의 윤리성을 회복하는 일. 소설은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하려 하지만 실제 서술은 후자에 맞춰져 있다. 현실적 전망을 도출하지 못한 채 회고적 태도를 견지하는 사이 감격스러운 사랑의 승리 속에 이념의 추상성이 용해되는 양상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와 진숙의 사랑은 과거의 경험이 상상적 전망에 따라 재구축되는 후일담의 형식을 띤다. 1990년대로 건너온 노동소설의 이념은 그 벽두에서 후일담으로 한 시기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1980년대 노동문학은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전환점을 겪었다. 1987년의 경험이 배태한 이념과 전망은 노동문학의 창작의 핵심 원리였으며, 이를 통해 1980년대 후반 노동문학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1987년의 이념과 전망은 소진된 듯 보인다. 후일담 문학의 소재 정도로 남아 있는 노동문학의 이념은 이 시점에서 단절되었다고 진단 내려도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1980년대의 한국 노동문학, 그 중에서도 노동소설은 3, 4년의 짧은 이행기에만 돌출된 특수한 사건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리하여 이 특수성을 해명하는 것이 노동문학사 연구의 한 방식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글은 1987년의 변혁의 체험에 내재한 문학성에 주목했다. 6월항쟁, 노동자 대투쟁이 새로운 노동문학사의 장을 열었으나, 경험의 강렬함을 충실히 형상화하지 못할 때 문학성은 위기를 맞는다. 즉 노동

문학의 위기, 혹은 단절은 시작에서부터 문학성 내부에 있었다는 뜻이다. 이 문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울산의 골리앗 투쟁이다. 1987년 직후 노동소설은 이 문제성을 감지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현실적 위기가 체감되면서 노동소설은 이 위기를 감당하기 시작한다. 『철강지대』, 「지옥선의 사람들」, 『사랑의 조건』은 노동운동의 이념의 위기에 대응한 한국 노동문학의 성과이자 한계이다. 울산과 골리앗 투쟁이 현실과 문학의 위기를 일거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골리앗 투쟁의 서사는 문학적 진실과 실제 현실과의 격차를 드러내는 데 그친다. 『철강지대』에서 울산은 계급투쟁의 원동력으로 제시되었으나, 파업 서사의 동력이 되지 못했다. 인천과 울산의 사이의 동질성을 소설 속 창원, 안양 등과의 관계에서 재현하지 못할 때 울산은 막연한 소문으로 남는다. 이에 비하면 「지옥선의 사람들」의 파업 서사는 실질적이다. 해포의 파업은 울산과의 연대의 차원에서만 의미를 가지기에 해포의 노동자들의 행위는 이념적인 동시에 실천적 내용을 포함한다. 해포와 울산이 연대할 때 계급투쟁은 비로소 가능하다는 전망이 이 소설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실제 울산, 골리앗 투쟁이 소설이 설정한 이념의 준거가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랑의 조건』은 1980년대 말의 정세 변화를 충실히 검토한 후, 노선 갈등, 현실 사회주의 몰락, 노동자의 윤리성 등의 문제를 울산의 공간성에 집약했으며, 노선 이념에 대한 믿음으로써 일거에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앞서 논구한 바와 같이 상상적 해결이라는 한계에 머문다.

이로써 1980년대 노동문학의 마지막 장면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문학의 문제성이 이 글의 주제인 골리앗 투쟁의 이념적 성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젠더를 포함한 일상의 문제, 1990년대 중반 노동운동의 문제성과 연결된 이념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연결된 지역성 문제 등이 1980년대 노동문학의 주제로 남겨져 있다. 기실 이들 문제는 골리앗 투쟁의 서사와도 직·간접적으로 연

결되어 있음이 이 글에서도 서술되었다. 그러나 이는 1987년 변혁의 이념과 그 변주라는 이 글의 주제를 넘어서는 다층적인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새로운 논의의 장에서 이 문제가 논구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후반 이행기의 논의는 1970년대와 2000년대와의 연속성 속에서 해명할 때 완결될 수 있음도 밝힌다. 이는 향후 노동문학 연구의 중요한 주제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방현석, 『내일을 여는 집』, 창비, 1991.  
안재성, 『과업』, 세계, 1989.  
\_\_\_\_\_, 『사랑의 조건』, 한길사, 1991.  
정혜주, 『내 안의 불빛』, 소명출판, 2003.  
정화진, 『철강지대』, 풀빛, 1991.  
차주옥, 『함께 가자 우리』, 실천문학사, 1990,  
홍희담, 「깃발」, 『창작과 비평』 59, 1988 봄.

### 2. 논저

- 강신준, 「두 개의 마르크스, 이념의 복원과 전술적 교훈」, 『산업노동연구』 21(1), 한국산업노동학회, 2015, 343-373쪽.  
구해근, 신광영 역,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김금수, 『한국노동운동사 6: 민주화 이행기의 노동운동/1987~1997』, 지식마당, 2004.  
김동춘, 『한국사회 노동자연구』, 역사비평사, 1995.  
김명인, 「지식인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 황석영 외, 『문학예술운동 1 ; 전환기의 민족문학』, 풀빛, 1987, 62-109쪽.  
김성환, 「1980년대 노동소설의 대중성 연구 - 이택주와 안재성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54, 동남어문학회, 2022, 27-60쪽.  
\_\_\_\_\_, 「노동자 생활글의 노동문학사적 맥락」, 『한국문학논총』 85, 한국문학회, 2020, 247-288쪽.  
김 원, 『87년 6월항쟁』, 책세상, 2009.

- 노호창, 「1980년대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개정과 노동권 실현에 있어서의 함의」, 『연세법학』 41, 연세법학회, 2023, 297-339쪽.
- 박규준, 「안재성의 『파업』 연구 - 내포적 총체성의 결핍과 인물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6, 한민족어문학회, 2014, 499-530쪽.
- 서중석 외, 『6월 민주항쟁』, 한울아카데미, 2017.
- 안현효, 「한국 사회성격논쟁의 현재성-NLPDR에서 신자유주의까지」, 『현대사상』 9, 대구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2011, 1-26쪽.
- 오하나, 『학출』, 이매진, 2010.
- 오현석, 「최초의 노동장편 소설 안재성의 『파업』에 드러나는 ‘학출’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인문연구』 8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1-48쪽.
- 유경순,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 1권: 학출활동가와 변혁운동』, 봄날의박씨, 2015.
- 윤인로, 「순수 매개, 당파성, 메시아성-1990년 골리앗 위의 노동해방문학」, 정기문 외 공저, 『1980년대를 읽다: 노동과 표현의 문제』, 글누림, 2015, 255-291쪽.
- 이남희, 유리·이경희 역, 『민중 만들기』, 후마니타스, 2015.
- 장수익, 「1980-90년대 노동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75, 한국문학회, 2017, 5-31쪽.
- 천정환,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마음산책, 2014.
- 최원식, 「광주항쟁의 소설화」, 『창작과비평』 60, 1988 여름.
- 최원식 외 공편, 『방현석·김한수 외』, 창비, 2006.
- 허 민, 『민주화 이행기 한국소설의 서사구조 재편 양상』, 성균관대 박사논문, 2021.
- 마사 누스바움, 박용준 역, 『시적 정의: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 궁리, 2013.

<Abstract>

## A Study on Literary Formation of the Goliath Struggle in Labor fictions since 1987

Kim, Sung-hwan\*

The labor fictions after 1987 was re-defined as the June Uprising and the Workers' Great Struggle, emphasizing the leading role of intellectuals and student labor activists. However, the reality that the capability of student labor activists was reduced after the end of the workers' great struggle, and the ideological differentiation began, was difficult to be embodied as a literary truth with the prospect of transformation in 1987. At this time, the labor fictions present the goliath struggle in Ulsan in 1990, when internal conflicts and problems were concentrated, as a new literary space. This article is a reproduction of the Ulsan and the goliath struggles as a problematic space to resolve the conflict in the labor movement, and focuses on Jeong Hwajin's *Steel Zone*, Bang Hyunseok's "People in the Ship of Hell", and Ahn Jaesung's *Conditions of Love*.

*Steel Zone* realistically describes the conflict between the capital and working class. The capitalist reactionaries such as the president Baek and the company union are embodied in three dimensions, and accordingly, the direction of workers' struggle is also sought for a realistic basis. What *Steel Zone* emphasized is the solidarity of the working class. The novel emphasizes the solidarity of the working

---

\* Pusan National University.

class beyond individual workplaces and presents the goliath struggle in Ulsan as a basis. By receiving the ideology sent from Ulsan, the struggle in the novel was able to acquire significance as a class struggle in Korean society. In “People in the ship of Hell”, the ideology of solidarity is further embodied. Reflecting the situation in the 1980s, the role of male-centered unions was emphasized, and the value of the class struggle of all working class was reaffirmed by leading a solidarity strike across the entire industrial complex. At this time, the ideology of solidarity acquires reality through the goliath struggle in Ulsan. Workers in Ulsan and those in novels confirm a sense of class homogeneity and present goals and strategies for struggle according to the common goal of class interest is the subject of this fiction’s narrative. *Condition of Love* established Ulsan as a prototype space for solving the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of ideological conflict in the 1980s. The protagonist, an intellectual activist, is depicted to resolve ideological conflicts through his trip to Ulsan while at the same time overcoming human affection problems. The conflict experienced by the protagonist reflects the situation of ideological differentiation and line conflict since 1987. Since the goliath struggle is an opportunity to prove the consistency of his strong class performance and line ideology, the protagonist reaches Ulsan and is confident of the victory of the class struggle and reveals his will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ideology and affection at once.

Key Words: June Uprising, Workers’ Great Struggle, Labor Literature in the 1980s, Labor Fictions, Working Class, Class Subjectivity, Solidarity of the Working Class, ‘Hakchul’

(Student Labor Activists), Advanced Labor Activists,  
Goliath Struggle in Ulsan, Jeong Hwajin, *Steel Zone*,  
Bang Hyunseok, “People in the Ship of Hell”, Ahn  
Jaesung, *Conditions of Love*.

■ 논문접수 : 2025년 03월 23일

■ 심사완료 : 2025년 04월 20일

■ 게재확정 : 2025년 04월 20일